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敦煌 經卷 『大般涅槃經』 卷第三과 高麗大藏經 비교 연구*

A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Dunhuang Manuscript
Mahaparinirvana Sutra in Yeungnam University Library and
Goryeo Daejanggyeong

정 광 훈 (Jung, Kwang-Hun)**

◁ 목 차 ▷

- | | |
|--|-------------------------------------|
| 1. 序 言 | 3.1 異體字의 차이 |
| 2.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의 서지사항과 연구가치 | 3.2 필사본과 인쇄본 편집방식의
차이: 品次名과 張次번호 |
| 3.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과 고려대장경 비교 | 4. 結 論
<참고문헌> |

< 초 록 >

20세기 초 중국 돈황의 막고굴에서 발견된 돈황 사본은 예술, 종교, 사회, 역사, 문학 등의 학문분야 뿐 아니라 도서와 출판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대부분 두루마리로 된 이 사본들은 인쇄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경전의 텍스트들이 기록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는지 알려준다. 이 돈황 사본들은 발견 후 수년 사이에 해외와 중국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중 몇 건이 1940년대 중반에 한국에도 흘러들어왔다. 영남대 도서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은 세계적인 돈황학자 판중규(潘重規) 선생이隋나라 때에 제작된 것으로 감정하였으며, 잔편이 아닌 온전한 하나의 두루마리로서 상당한 문헌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황 사본은 약 30여 년 전에 해제와 함께 학계에 소개된 이후로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의 연구가치를 재조명하고, 고려대장경 인경본과의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형식의 두 불경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문헌학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要語: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高麗大藏經, 異體字, 필사본 두루마리, 인쇄본 불경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kh0315@daum.net)

접수일: 2014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9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Dunhuang Manuscripts discove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t Mao Cave of Dunhuang, the city of northwestern China, are highly important materials not only in art, religion, sociology, history, literature but also in the history of book and publication. These manuscripts, mostly made in the type of hand-copied scrolls, indicate how the Buddhist Sutra was written and produced for people to see before the age of print. In the course of the years from its discovery, Dunhuang Manuscripts were dispersed to several countries and a couple of them was introduced into Korea in the middle of 1940s.

Mahaparinirvana Sutra in Yeungnam University Library was identified as a manuscript of the Sui(隋) Dynasty by Pan Chong-gui who is a prominent scholar of Dunhuang Studies and also it has a distinct philological value as a hand-copied scroll. In spite of its high value of philological study, rare research on this manuscript was conducted after the simple introduction about 30 years ago. Therefore, this paper resurfaces the academic value of this manuscript and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two types of the Sutra in the philological point of view by comparing with the printed *Goryeo Daejanggyeong*.

Key words: Yeungnam University Dunhuang manuscript,
Mahaparinirvana Sutra, *Goryeo Daejanggyeong*,
Variant Chinese Character, Hand-copied scroll, Printed sutra

1. 序 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무렵, 훗날 ‘藏經洞’이라 이름을 붙인 중국 甘肅省 敦煌 莫高窟의 한 석굴에서 수만 건의 필사본과 소량의 인쇄물·그림 등이 당시 석굴을 관리하고 있던 왕위엔루(王圓籙)라는 사람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다. 이들 사본이 제작된 시대는 5~11세기까지 걸쳐 있으며, 그중에서도 唐代的 사본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사본의 형태는 필사된 두루마리가 대부분이나 간혹 인쇄본 두루마리, 소책자 필사본, 낱장의 인쇄물, 인쇄와 필사가 섞인 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 중 90% 이상이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며, 그밖에 유가 경전·문학 작품·역사서·짧은 메모·계약서·습자용 교재·밀그림 등도 있다. 이 사본들은 발굴 후 몇 년 사이에 영국·프랑스·러시아·일본 등의 탐험대에 의해 해외로 반출된다. 청나라 정부는 뒤늦게 장경동 돈황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10년에 베이징으로 자료 전체를 이전하도록 명한다. 대략 5만여 건으로 추정되는 이 사본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해당 국가의 학자들이 이 사본들을 연구하면서 ‘돈황학’은 자연스럽게 세계적 학문이 된다. 1백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돈황학’은 지금도 종교·예술·역사·사회·경제·문화 교류·어문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연구되고 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20세기 초 돈황에서 흩어진 일부 사본들은 수십년 후 한국에도 유입되었다. 이 사본들은 원래 청 정부가 돈황 장경동 자료를 베이징으로 옮길 것을 지시한 후 흩어진 사본 중 일부로 보인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 소장 돈황 사본으로는 영남대도서관 소장 「大般涅槃經」 卷第三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 「大般若波羅蜜多經」 卷五十의 「初分大乘鑿品」 第十四之二 두루마리가 있다.¹⁾ 이중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

1) 1968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현재 위의 두 사본 외에 돈황 불경 두루마리가 한 건 더 국내에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본의 내용은 「大般若波羅蜜多經」 卷四三八이며, 이는 당시 매체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정황상 이 세 건의 사본들은 모두 서울대 사회학과 이상백 교수(1904-1966)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와세다대학에서 과건한 제외특별연구원으로 베이징에 머물던 때 입수하여 국내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經」卷第三에 대해서는 영남대 洪禹欽 교수가 1981년에 이미 대만 판충구이(潘重規) 선생의 발문과 함께 해제를 달아 소개한 적이 있다.²⁾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홍우흠 교수의 해제 이후 이 사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존재 자체도 잊혀져가고 있다. 李圭甲 교수 등이 지은 『敦煌文獻總覽』은 한국의 학자들이 돈황 문헌을 불교·문학·경학·도교·언어문자 등의 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소개한 책인데, 여기에 한국 소장 돈황 경권에 대한 소개는 없다.³⁾ 물론 이 책이 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 소장자료를 위주로 돈황문헌을 소개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소장된 돈황 경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현재까지 돈황본 『大般涅槃經』을 전반적으로 다룬 대표적 연구 성과로는 중국학자 景盛軒(景盛軒)의 박사논문을 들 수 있다.⁴⁾ 이 논문은 版本·異文·校勘·訓詁 편으로 나누어 돈황본 『대반열반경』을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물론 한국 소장 사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저자는 한국 소장 돈황 사본 『대반열반경』이 두루마리 한 권의 형태로 상당히 온전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卷第三의 존재를 다시 알리고, 그 연구 가치를 재조명함과 아울러 현존하는 再雕 고려대장경과의 비교를 통해 두 경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헌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남대 돈황 사본과 고려대장경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세 사본 중 위에서 언급한 두 권은 영남대도서관과 서울대규장각으로 소장처가 분명하나, 나머지 한 권은 최초 소장자의 손을 떠난 후 아직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필자는 최근 이 세 사본을 소개하고 그 소장 과정을 추적하는 글을 기고한 바가 있다. 정광훈, “한국 소장 돈황 사본의 소개와 소장 과정 추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제돈황프로젝트 서울센터(IDP SEOUL) 편, 『IDP SEOUL NEWS』 7호(2014. 4), 1-6.

2) 洪禹欽, “敦煌卷子<大般涅槃經卷第三>·<大般涅槃經金剛身品第二>解題,” 『中語中文學』 第3輯(1981. 10).

3) 李圭甲 外著, 『敦煌文獻總覽』(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1).

4) 景盛軒, “돈황본 《대반열반경》 연구—판본과 異文, 훈고를 중심으로(敦煌本《大般涅槃經》研究—以版本、異文及訓詁爲中心),” (박사학위논문, 浙江大學 人文學院, 2004). 이 논문은 현재까지 돈황본 『대반열반경』에 대한 유일한 박사학위논문이다.

두 가지 모두 실물의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돈황 자료는 사본의 형식으로, 고려대장경은 경판과 그것의 인쇄본 형태로 실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차 텍스트 자료를 통한 연구보다 훨씬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2.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의 서지사항과 연구가치

현존 「大般涅槃經」은 크게 北本과 南本으로 나뉜다. 북본은 40권본으로 421년에 北凉의 曇無讖이 漢譯하였고, 남본은 북량 멸망 후 慧嚴·慧觀·謝靈運 등의 「涅槃經」 학자들이 강남으로 내려와 36권으로 다시 편찬한 경전이다. 북본과 남본은 내용은 일치하고 품의 구별만 서로 다르다. 즉 북본은 13품, 남본은 6권의 「般泥洹經」에 바탕을 두고 25품으로 자세하게 품을 나눈 것이다.⁵⁾ 돈황본 「대반열반경」은 북본 위주에 약간의 남본도 포함되어 있으며, 남본과 북본을 섞어서 만든 사본도 일부 전한다.⁶⁾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영남대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은 북본 「대반열반경」에 속한다. 영남대도서관의 자료목록에 따르면, 이 사본(이하 ‘영남대 사본’으로 약칭)의 형태는 “1軸, 有界, 25.7×786cm”이다. 이는 돈황 불경 두루마리의 전형적인 폭과 길이라 할 수 있다. 각행 17자 역시 돈황 경권에서 가장 일반적인 字數이며, 사본에 쓰인 글자 자체는 상당히 반듯하고 공을 들인 모습이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大般涅槃經」 卷第三 중 「壽命品第三」과 「大般涅槃經」 金剛身品第二이다. 卷首에는 ‘大般涅槃經卷第三’이라는 卷次名과 순번이 있고, 卷中에는 ‘大般涅槃經金剛身品第二’라는 品次名과 순번이 쓰여 있다. 그러나 두루마리 머리에 ‘壽命品’이라는 제목은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홍우흠의 해제에서는 「大般涅槃經」 卷第三이 총 303행 5,156자이고 「大般涅槃經」 金剛身品第二는 총 170행 2,884자라고 했다.⁷⁾ 그러나 「大般涅槃經」의 원래 체제를 고려하면,

5) 한글대장경 「大般涅槃經」 四十卷本 (서울: 동국역경원, 1998), 해제, 8.

6) 景盛軒(2004), 15.

『大般涅槃經』卷第三이 아닌 『壽命品第三』이 303행 5,156자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림 1> 영남대도서관 소장 「大般涅槃經」卷第三 卷頭

대만 돈황학자 관충구이 선생은 1977년 영남대를 방문하던 중에 이 사본을 감정하고 跋文을 달았다. 발문 중 사본의 제작시대 및 외형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다중이에 四界가 있고 서법이 정교하다. 처음 표제 “大般涅槃經卷第三”부터 말권 밖의 復題 “大般涅槃經卷第三”까지 題字는 1행이고, 진권은 모두 17장 중이에, 1장 20행, 1행 17자이다. ‘世’자와 ‘治’자를 모두 피휘하지 않았으니 唐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필적으로 보면 隋代의 사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제 1행 ‘疑’, ‘今’, 제 2행 ‘修學’의 ‘學’ 등 여러 글자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楮紙四界, 書法精工, 起標題大般涅槃經卷第三, 迄末卷外復題大般涅槃經卷第三, 題字一行, 全卷凡十七紙, 紙二十六行, 行十七字. ‘世’字·‘治’字, 皆不避諱, 蓋唐以前物. 以書蹟觀之, 疑爲隋代寫本也. 又第一行‘疑’·‘今’, 第二行‘修學’之‘學’諸字頗有損.)⁸⁾

7) 洪禹欽(1981), 613.

8) 洪禹欽(1981), 641.

서언에서 언급한 몇몇 신문기사에 따르면, 영남대 돈황 사본은 1968년 10월 초 대구의 '集古堂'이라는 고서점에서 다른 한 권의 돈황 두루마리 사본과 함께 발견되었다. 국문학자인 도남 조윤제 선생은 이 두루마리들을 구입하여 자택에 소장하였다. 그러다가 1976년 도남 선생 작고 후 두루마리 한 권이 다른 장서들과 함께 선생이 몸담고 있던 영남대학교에 기증되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바로 영남 대도서관 소장 「大般涅槃經」 卷第三인 것이다.⁹⁾ 1968년 돈황 사본의 발견은 주요 일간지에 상세히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이었고, 돈황 사본의 판매와 유통, 입수 과정을 둘러싼 당시의 소송은 지금도 고서 관련 주요 소송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大般涅槃經卷第三

佛法所作善能解說是名律師善解一字善
持契經之復如是善男子佛法无量不可思
議如來之不可思議迦葉菩薩白佛言世
尊如是如是誠如聖教佛法无量不可思議
如來之不可思議故知如來常住不壞無
有變異我今善學之當為人廣宣是義
今時佛讚迦葉菩薩善哉善哉如來身者即
是金剛不可壞身菩薩應當如是善學正見
正知若能如是了了知見即是見佛金剛之
身不可壞身如於鏡中見諸色像

<그림 2> 영남대도서관 소장 「大般涅槃經」 卷第三 卷末

9) 현재 이 사본은 영남대도서관의 '도남문고'로 분류되어 있다. 당시 같이 발견된 다른 사본 한 권은 조윤제 교수의 제자였던 故 이동영 부산대 교수가 최초 소장하였다가 몇 년 후 유명 서양화가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 사본이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

관충구이 선생의 발문에 근거하면, 영남대 사본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0여 년 전 隋나라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돈황 한문 사본 중 70~80%가 中唐부터 宋初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그보다 수백 년 앞선 영남대 사본은 우선 시대적으로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돈황 사본들이 首眉가 떨어져나거나 殘片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남대 사본은 전형적인 편폭과 크기의 온전한 두루마리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해외의 다른 소장처에 보관된 『大般涅槃經』 卷第三 돈황 사본들과 비교해보아도 그 문헌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 돈황 자료의 대표적 소장처인 ‘영국국가도서관·프랑스국립도서관·중국국가도서관’ 소장 돈황본 『大般涅槃經』 卷第三의 사본번호는 아래와 같다.

- ① 영국국가도서관 소장본: S.0172, S.2298, S.2835, S.2876, S.4720, S.4868, S.5163, S.6742
- ②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 P.4834
- ③ 중국국가도서관 소장본: 北6298, 北6299, 北6300, 北6301, 北6302, 北6303, 北6304, 北6307, 北6537¹⁰⁾

위에서 보듯이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大般涅槃經』 卷第三은 총 9건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중에 온전한 두루마리 형태는 하나도 없으며,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P.4834는 작은 잔편 한 건이다. 영국국가도서관의 돈황본 『大般涅槃經』 卷第三은 수미가 떨어져나간 것과 온전한 두루마리가 섞여 있는데, 그 중 S.4720, S.5163, S.6742가 보존 상태와 편폭 등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두루마리들이다.¹¹⁾ 그리고 러시아소장 『大般涅槃經』 卷第三인 Дх-390(『金剛

10) 사본번호에서 ‘S’는 1900년대 초에 돈황 사본을 영국으로 가져간 오렐 스타인(Aurel Stein)의 성에서, ‘P’는 돈황 사본을 프랑스로 가져간 폴 펠리오(Paul Pelliot)의 성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北’은 北京圖書館(현재는 中國國家圖書館)에서 따온 표기이다.

11) 영국, 프랑스, 중국의 사본 목록은 敦煌研究院 編, 『敦煌遺書總目索引新編』(北京: 中華書局, 2000)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였다. 중국국가도서관은 최근 사본번호를 새롭게 정리하였는데, 위 사본들의 새 사본번호는 각각 다음과 같다: 北6298(BD01215), 北6299(BD04355),

身品」第二), Φ-184(「名字功德品」第三) 역시 사본 중 극히 일부 내용만 남아있는 殘卷이다.¹²⁾ 이렇듯 돈황 사본 중 「大般涅槃經」 卷第三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본이 극소수이며, 그런 면에서 영남대도서관의 돈황 사본은 더욱 연구가치가 있는 것이다.

3.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과 고려대장경 비교

돈황의 불경 필사본은 宋代에 인쇄본 책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전 불경의 모습을 실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수만 권에 달하는 돈황 불경 두루마리는 인쇄본 책자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이미 필사 형식으로 활발히 제작되었으며, 인쇄의 시대 이전 필사의 최전성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아울러 불경의 번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魏晉南北朝 시대의 불경과 시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고, 唐代에도 대량으로 이루어진 불경 번역 작업의 동시대 자료라는 점에서도 종교적, 학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 우리가 주로 접하는 元代 이후 불경 자료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원형적 모습에 가까운 불경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불교의 핵심기치 중 하나였던 돈황에서 발견된 자료라는 점도 그 자료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러 이유로 돈황 사본과 후대 불경의 비교와 관련하여 종교·문헌·언어·문화 등의 관점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어왔다. 한국에서도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주도하여 영국·프랑스·중국 소장 돈황 사본과 고려대장경의 비교작업을 진행하여, 2011년에 이미

北6300(BD07654), 北6301(BD07659), 北6302(BD02370), 北6303(BD07516), 北6304(BD02726), 北6307(BD07462), 北6537(BD02336). 사본의 이미지는 국제돈황프로젝트 IDP 웹사이트(idp.bl.uk)에서 먼저 확인하였으며, IDP에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사본의 경우, 중국국가도서관 자료는 中國國家圖書館 編, 「國家圖書館藏敦煌遺書」(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 2005년 이후 계속 발행)를, 영국과 프랑스 자료는 黃永武 主編, 「敦煌寶藏」(서울: 驪江出版社, 1989)의 마이크로필름 이미지를 참고하였다.

12) 孟列夫(Men'shikov, L.N.) 主編, 「러시아 소장 돈황 한문 사권 서록(俄藏敦煌漢文寫卷叙錄)」, 上冊(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232쪽, 601·602조.

대규모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¹³⁾ 그러나 이 세 나라의 사본을 연구 대상으로 국한했기 때문인지, 앞서 언급한 영남대 돈황 사본의 학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소장된 돈황 불경자료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그것과 고려대장경과의 대조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아래에서는 再雕 고려대장경 印經本을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과 비교하여 두 경전의 문헌학적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남대 돈황 사본은 6세기 수나라 때의 것으로 추정되고, 재조본 고려대장경은 13세기 중반에 판각되었다. 두 경전의 제작 연대에 약 7세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 사이에 불경은 글자의 모양과 편집 방식 등 외형적 측면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여러 차례의 수정과 교정을 거쳤다. 실제로 재조본 고려대장경은 고려의 初雕藏經本을 위시하여 북송본과 거란본 등의 여러 장경들을 수집해서 守其의 주도 하에 편집과 교정을 거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2세기 전 初雕本과 教藏本 대장경을 조성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몽고에 의해 소실된 대장경의 복원 조성을 위해 大藏都監과 分司都監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의 중심 사원까지 참여해서 유기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한 것이 바로 재조본 고려대장경이다.¹⁶⁾ 다시 말해 이 고려대장경은 숙련된 경판 조성의 경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작 방식과 물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완성본 대장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영남대 돈황 사본은 『대반열반경』이 처음 漢譯된 5세기 초에서 2세기도 지나지 않아 필사된 초기의 경전이다. 따라서 둘의 비교를 통해 두루마리 사본으로 필사된 초기 『대반열반경』과 전문적인 편집과정을 거쳐 제작된 후기 인쇄본 『대반열반경』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3) 李圭甲 外著, 『高麗大藏經과 敦煌佛教文獻 對照目錄(敦煌文獻卷子編號, 高麗大藏經番號)』 (서울: 高麗大藏經研究所, 2011).

14) 영남대 돈황 사본은 앞부분 몇 글자가 蟲害로 인해 알아보기 힘들다. 이 글자들은 대조의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15) 張愛順·鄭承碩·貝 英孝·宋永 知海 공저, 『高麗大藏經의 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48.

16) 송일기, “고려대장경의 조성과정 연구,” 『書誌學研究』 第49輯(2011. 9), 43.

두 경전의 비교 작업에서 고려대장경의 이미지와 텍스트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의 인경본을 주로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동국대학교 발행 漢文 「高麗大藏經」을 함께 참고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비교표에서 고려대장경 텍스트의 위치는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의 위치정보를 그대로 따랐다. 고려대장경 「大般涅槃經」은 경전 번호가 K0105이며, 위치정보에서 ‘V’는 冊次, ‘P’는 페이지, ‘a, b, c’는 상·중·하단을, ‘L’은 행수를 가리킨다. 필자는 여기에 총 28쪽인 고려대장경 「大般涅槃經」 卷第三의 페이지를 1쪽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V09-P0021-a(2)3’으로 고려대장경의 위치를 표시했을 경우, 이는 「大般涅槃經」 9번째 책, 0021쪽, 상단(해당 권에서는 두 번째 페이지), 제 3행을 가리킨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비교할 고려대장경 「大般涅槃經」 卷第三은 모두 9번째 책에 포함되므로 아래의 표에서는 간략히 ‘V09’를 생략할 것이다. 아울러 영남대 돈황 사본의 텍스트 위치는 홍우흠의 해제에서 소개한 사본 이미지의 페이지 순서를 필자가 편의상 1쪽부터 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 중 가장 온전한 사본에 속하는 영국국가도서관 소장 S.6427의 원문을 「敦煌寶藏」의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보고 참고했다.¹⁷⁾ 이 S.6427 역시 영남대 사본과 비슷한 시기인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이다. 아래의 표는 고려대장경과 영남대 소장 「大般涅槃經」 卷第三 돈황 사본을 비교하여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필자의 校注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교주 외에 영남대 돈황 사본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나 따로 보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논했다.

17) 「敦煌寶藏」에서 S.6427 「大般涅槃經」 卷第三은 제 51권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의 S.6427에 대한 언급에서는 ‘敦煌寶藏’이라는 제목과 卷次는 제외하고 페이지와 행수만 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예를 들어 ‘220쪽 하단 10행’이라고 표시했을 경우, 이는 「敦煌寶藏」 제 51권 220쪽 하단의 제 10행을 가리킨다.

<표 1> 고려대장경과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 비교표

구분	高麗大藏經 印經本 『大般涅槃經』卷第三(K0105)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卷第三	
	번호	위치정보	비교사항	쪽-행
1	P0020-c(1)2	北涼天竺三藏 曇無讖譯	1	譯者 표시 없음
2	P0020-c(1)3	壽命品第一之三	1	品次 표시 없음
3	P0020-c(1)6	寂	1-4	寂 ¹⁸⁾
4	P0020-c(1)8	復告諸比丘	1-5	復告比丘 ¹⁹⁾
5	P0020-c(1)10	無 ²⁰⁾	1-7	无
6	P0020-c(1)10	如來應正遍知	1-7	如來應知遍知 ²¹⁾
7	P0020-c(1)14	老人年百二十	1-10	老人年百二十六 ²²⁾
8	P0020-c(1)18	或十年還二十年還	1-14	或十年二十年還 ²³⁾
9	P0020-c(1)22	債索無所	1-16	責索无於 ²⁴⁾
10	P0021-a(2)1	債索無所	1-17	責索无於
11	P0021-a(2)3	教試	1-18	教戒 ²⁵⁾

- 18) ‘寂’의 이체자이다. 영남대 사본에는 ‘寂’이 ‘𣎵’ 모양으로 쓰인 곳도 있다(영남대 사본 16쪽-20행). 이 글자는 ‘寂’의 이체자 중 하나인 ‘𣎵’의 변형으로 보인다.
- 19) S.6742본은 ‘復告諸比丘’로 되어 있다(222쪽 하단 5행).
- 20) 고려대장경본에서는 ‘無’, ‘𣎵’, ‘无’가 불규칙하게 섞여 쓰이며, ‘無常’과 ‘无常’처럼 같은 용어를 다른 글자로 쓴 경우도 있다. 영남대 사본은 모두 이체자인 ‘无’로 썼다. ‘𣎵’는 고려대장경에 쓰인 ‘無’의 이체자 중 하나이다.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 (서울: 高麗大藏經研究所, 2000), 571쪽, 3348 ‘無’ 조목 참고. 이하의 고려대장경 이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모두 이 책을 참고한다.
- 21) 내용상 “如來應正遍知”가 맞으며, 온전한 두루마리 사본인 S.6742 『大般涅槃經』 卷第三에도 “如來應正遍知”로 적혀 있다(222쪽 하단 7행). 이 부분은 아래의 ‘知’를 잘못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영남대 사본의 3쪽 8행에는 “如來應正遍知”로 올바르게 적혀 있다. 돈황 사본에서 앞줄이나 뒷줄 혹은 다음 글자를 잘못 보고 조사한 경우는 매우 흔하다.
- 22) S.6742본에서는 ‘二十’을 合字한 ‘廿’을 써서 ‘二十六’을 ‘廿六’으로 썼다(222쪽 하단 10행).
- 23) “10년 뒤에 돌아오거나 20년 뒤에 돌아오거든”이라는 내용이므로 ‘還’이 두 번 들어가는 게 맞다. S.6742본에는 “或十年還廿年還”으로 쓰여 있다(222쪽 하단 14행).
- 24) 이 부분은 “빌려준 것을 찾을 길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債索無所”가 의미상 맞겠다. 영남대 사본을 보면 ‘責’인지 ‘靑’인지 불분명하며, 의미상으로는 ‘責’이 더 맞으나 글자는 오히려 ‘靑’에 더 가까워 보인다. S.6742에는 ‘責索无於’로 확실히 쓰여 있다(222쪽 하단 16행). 고대에 ‘責’은 ‘債’와 같은 뜻으로 통용되었다.

구분	高麗大藏經 印經本 『大般涅槃經』 卷第三(K0105)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	
	번호	위치정보	비교사항	쪽-행 비교사항
12	P0021-a(2)4	令法久住	1-19	令得久住 ²⁶⁾
13	P0021-b(3)1	蚊 ²⁷⁾	2-15	蚤
14	P0021-b(3)2	默然	2-16	嘿然 ²⁸⁾
15	P0021-b(3)13	偏袒右臂	3-5	偏袒右肩 ²⁹⁾
16	P0021-c(4)19	煩惱 ³⁰⁾	4-9	煩惱
17	P0022-a(5)8	如其斷疑網 ³¹⁾	4-19	如其斷疑罔
18	P0022-b(6)14	我以脩習如是業 故得	6-3	我已脩習如是業 故疾得 ³²⁾
19	P0022-c(7)15	在屏隈處	7-2	在屏 衺處 ³³⁾
20	P0023-a(8)7	所以與誘法者	7-15	所以與誘法者 ³⁴⁾
21	P0023-a(8)12	如來今者	7-18	如來今日 ³⁵⁾

- 25) ‘戒’는 ‘戒’의 이체자이며 ‘試’는 한자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나중에 ‘言’ 편방을 더한 글자이다.
- 26) S.6742본도 ‘令得久住’로 되어 있다(222쪽 하단 20행).
- 27) ‘蚊’은 고려대장경에 보이는 ‘蚊’의 이체자 중 하나이다.
- 28) ‘嘿’은 ‘默’의 이체자 중 하나이며 고려대장경에도 쓰인 글자이다.
- 29) 이 부분은 “오른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의 의미이므로 “偏袒右臂”보다는 “偏袒右肩”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S.6742에도 “偏袒右肩”으로 기록되어 있어 초기 경전에는 ‘臂’가 아닌 ‘肩’이 쓰였음을 증명해준다(223쪽 하단 5행).
- 30) ‘惱’는 고려대장경에 보이는 ‘惱’의 속자 중 하나이다.
- 31) ‘網’은 고려대장경에 보이는 ‘網’의 속자 중 하나이다.
- 32) 이 부분은 “나는 이러한 업을 배우고 익혀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는 내용이므로 의미상으로는 ‘以’가 적당할 것이지만 고대에 ‘以’와 ‘已’는 통용되었다. 영남대 사본에서 ‘빠르게’라는 의미의 ‘疾’이 쓰인 건 특이하다. 앞뒤에 ‘疾’ 혹은 이와 흡사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잘못 필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원래부터 ‘疾’자가 들어간 다른 사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S.6742본은 ‘翫’대신 ‘集’이 들어가 “我已脩集如是業故得”으로 쓰여 있는데(224쪽 하단 17행), 여기서 ‘集’은 ‘翫’의 오기일 것이다.
- 33) ‘衺’는 ‘으스한 곳’을 뜻하는 글자이다. 고려대장경 『大藏一覽集』(K1504)에서는 같은 구문에서 이 글자를 쓰기도 했다. 李圭甲, 『高麗大藏經異體字典』, 261쪽, 1565년 조목 참고.
- 34) ‘與’가 바로 두 줄 앞의 “於毀法者與”에는 ‘與’로 쓰여 있다. 반면 고려대장경본은 모두 ‘與’로 쓰여 있다. S.6742본 역시 모두 ‘與’로 쓰여 있다(225쪽 하단 3, 6행).
- 35) “여래는 지금 그러한 무량한 세력을 갖춘 것이다”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내용에 근거하면 “如來今者”가 더 적합할 것이다. S.6742본 역시 “如來今者”로 쓰여 있다(225쪽 하단 9행).

구분	高麗大藏經 印經本 『大般涅槃經』卷第三(K0105)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卷第三	
	번호	위치정보	비교사항	쪽-행
			쪽-행	비교사항
22	P0023-a(8)23	田宅屋舍	8-8	田澤屋舍 ³⁶⁾
23	P0023-b(9)10	若有一人	8-16	若見一人 ³⁷⁾
24	P0023-c(10)3	勸勵	9-9	勸厲 ³⁸⁾
25	P0024-a(11)10	恒河	10-12	恒伽 ³⁹⁾
26	P0024-a(11)11	阿梨羅跋提	10-13	阿梨拔提 ⁴⁰⁾
27	P0024-a(11)12	八名悉 ⁴¹⁾	10-14	八名私他 ⁴²⁾
28	P0024-a(11)16	阿耨達池	10-17	阿那婆 ⁴³⁾
29	P0024-a(11)19	醍醐	10-20	提湖 ⁴⁴⁾
30	P0024-a(11)23	如霍大雨	11-3	如注大雨 ⁴⁵⁾
31	P0024-b(12)4	左脇, 右脇	11-7	左脅, 右脅 ⁴⁶⁾

- 36) 『廣韻』에 따르면 ‘宅’과 ‘澤’은 모두 ‘場伯切’로 음이 같다. S.6742본 역시 ‘田澤’으로 쓰여 있다(225쪽 하단 19행).
- 37) “만일 한 사람이 칼로서 부처님을 해치고…”라는 내용이므로 의미상 “若有一人”이 적합할 것이다. 바로 다음 행에 “復有一人”이 나온다. S.6742본은 “若有一人”으로 쓰여 있다(226쪽 상단 7행).
- 38) S.6742본 역시 ‘勸厲’로 쓰여 있다(226쪽 상단 20행).
- 39) ‘恒河’는 곧 ‘恒伽河’의 줄임말로서 인도의 갠지즈강을 가리킨다. 따라서 ‘恒河’와 ‘恒伽’ 모두 올바른 표기법이다. 丁福保 編, 『佛學大辭典』(北京: 文物出版社, 1984), 836. S.6742본에도 ‘恒河’로 쓰여 있다(226쪽 하단 22행).
- 40) S.6742본에도 ‘阿梨拔提’로 쓰여 있다(226쪽 하단 23행).
- 41) ‘悉’은 ‘悉’의 이체자이며, 실제 사본에는 위쪽의 ‘宀’이 ‘坐’에 더 가까운 모양으로 쓰여 있다. 고려대장경과 영남대 사본 모두 ‘悉’자가 이 모양으로 쓰여 있다.
- 42) S.6742본에는 ‘八名悉⁴¹⁾隨’로 쓰여 있다(227쪽 상단 2행). ‘悉隨’, ‘私他’, ‘悉隨’ 모두 ‘실타’의 음차로 볼 수 있다.
- 43) S.6742본에는 ‘阿耨達池’로 쓰여 있다(227쪽 상단 5행). ‘那’는 ‘那’의 이체자이다. 고려대장경에는 약간 다른 ‘那’ 모양으로 쓰여 있다. 이 글자는 고려대장경에 등장하는 ‘那’의 여러 이체자 중 하나이다.
- 44) 이하에서도 ‘醍醐’가 여러 번 나오는데, 고려대장경은 모두 ‘醍醐’로 영남대 사본은 모두 ‘提湖’로 쓰여 있다. S.6742본 역시 ‘提湖’로 쓰여 있다(227쪽 상단 8행).
- 45) ‘霍’와 ‘注’는 모두 물을 퍼붓는다는 의미이다. S.6742본 역시 ‘如注大雨’로 쓰여 있다(227쪽 상단 10행).
- 46) ‘脇’과 ‘脅’은 모두 ‘脅’의 이체자이다. S.6742본은 ‘左脅’, ‘右脅’으로 쓰여 있다(227쪽 상단 14행).

구분	高麗大藏經 印經本 『大般涅槃經』 卷第三(K0105)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	
	번호	위치정보	비교사항	쪽-행
32	P0024-c(13)2	不求乳酪	12-4	不求酪乳 ⁴⁷⁾
33	P0025-b(15)4	如是二字	14-3	如此二字 ⁴⁸⁾
34	P0025-c(16)4	無有異想, 无無常想, 無變異想	15-1	无有異相, 无无常相, 无變異相 ⁴⁹⁾
35	P0025-c(16)14	肉眼	15-9	穴眼 ⁵⁰⁾
36	P0026-a(17)22	不可思議, 常不可思議	16-15	不可思議, 常不可議 ⁵¹⁾
37	P0026-b(18)3	非有非无	16-18	非有亦有 ⁵²⁾
38	P0026-b(18)19	不退不轉	17-10	不遷不轉 ⁵³⁾
39	P0026-c(19)12	如坏器乎	18-4	如坏器耶 ⁵⁴⁾
40	P0027-a(20)4	鉢梁	18-16	𠵽 ⁵⁵⁾
41	P0027-a(20)6	塚	18-18	冢
42	P0027-a(20)15	懶墮	19-5	懶墮
43	P0027-a(20)19	祇夜	19-8	祇耶 ⁵⁶⁾

- 47) ‘酪乳’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不期乳酪”에는 ‘乳酪’으로 쓰여 있다. S.6742본은 모두 ‘乳酪’으로 쓰여 있다(227쪽 하단 10, 13행).
- 48) “如此二字”가 S.6742본에는 “如是二字”로 쓰여 있다(228쪽 하단 5행). ‘是’와 ‘此’는 의미와 발음이 모두 비슷하지만, 이 내용 바로 앞에 “脩此二字”가 두 번 나오는 것에서 판단할 때 영남대 사본은 이 부분을 잘못 보고 “如此二字”로 썼을 수 있다.
- 49) 현존 고려대장경은 이 부분이 “(이 세 가지 법에는) 다르다는 생각도 없고 무상하다는 생각도 없으며 바뀐다는 생각도 없다”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의미상 ‘想’이 적당할 것이다. 실제로 바로 뒷부분의 “脩異想者”, “脩常想者”에서는 ‘相’을 ‘想’으로 쓰고 있다. S.6742본에는 독특하게 “无有異想, 无无常相, 无變異相”으로 쓰여 있다(229쪽 상단 2행).
- 50) ‘穴’은 ‘肉’의 古字이다. 고려대장경에서도 이 글자가 ‘肉’의 이체자로 쓰였다. S.6742본에는 ‘肉眼’으로 쓰여 있다(229쪽 상단 11행).
- 51) S.6742본에는 “不可思議, 當不可議”로 쓰여 있다(229쪽 하단 15행).
- 52) 이 부분은 잘못 썼다가보다는 같은 불경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변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뒤로 이어지는 문장은 “非主亦主, 非有亦有, 非覺非觀, 非字非不字, 非定非不定”이다. 앞쪽은 “非~亦~”(~가 아니면서 또한~인), 뒤쪽은 “非~非~”(~가 아니면서 ~가 아닌)의 구조로 쓴 것이다. S.6742본에는 “非有非无”로 쓰여 있다(229쪽 하단 18행).
- 53) S.6742본 역시 “不遷不轉”으로 쓰여 있다(230쪽 상단 10행).
- 54) S.6742본 역시 “如坏器耶”로 쓰여 있다(230쪽 상단 23행).
- 55) S.6742본 역시 “𠵽”으로 쓰여 있다(230쪽 하단 13행).
- 56) S.6742본 역시 “祇耶”로 쓰여 있다(231쪽 상단 3행).

구분	高麗大藏經 印經本 『大般涅槃經』卷第三(K0105)		영남대 소장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卷第三	
	번호	위치정보	비교사항	쪽-행
44	P0027-a(20)19	伽陁	19-9	伽陁 ⁵⁷⁾
45	P0027-a(20)20	阿浮陁達磨	19-10	阿浮陁達摩 ⁵⁸⁾
46	P0027-b(21)20	无量億歲, 餘四十年, 佛法未滅	20-8	無量億歲, 餘四十年 ⁵⁹⁾
47	P0027-b(21)22	頒宣廣說	20-10	班宣廣說 ⁶⁰⁾
48	P0027-c(22)6	瘡體	20-16	創體 ⁶¹⁾
49	P0028-a(23)16	驅逐	22-2	駟逐 ⁶²⁾
50	P0028-a(23)20	國王大臣	22-6	國主大臣 ⁶³⁾
51	P0028-b(24)23	沮壞	23-6	阻壞
52	P0028-c(25)5	調伏衆生故	23-11	調衆生故 ⁶⁴⁾
53	P0028-c(25)7	或至寡婦媼女舍宅, 與同 住止, 經歷多年	23-12	或至寡婦媼女舍宅, ⁶⁵⁾ 與同住止, 經歷多年 ⁶⁶⁾
54	P0028-c(25)10	慎莫更犯	23-15	慎更莫犯 ⁶⁷⁾

- 57) ‘伽陁’ 외에 ‘優陁那’, ‘閻陁伽’, ‘阿浮陁達摩’ 등도 고려대장경은 ‘陁’, 영남대 사본은 ‘陁’로 쓰여 있다. S.6742본 역시 ‘陁’로 쓰여 있다(231쪽 상단 4행).
- 58) S.6742본은 ‘達磨’로 쓰여 있다(231쪽 상단 5행).
- 59) 영남대 사본에는 “佛法未滅” 네 글자가 없다. S.6742본 역시 이 네 글자가 없다. 아울러 ‘四十’은 ‘二十’의 합자인 ‘卅’을 다시 이어붙인 ‘卅卅’ 모양으로 쓰여 있다(231쪽 하단 3행).
- 60) S.6742본에는 ‘班’이 ‘斑’으로 쓰여 있다(231쪽 하단 4행). ‘斑’은 ‘班’의 오기로 보이며, 돈황 사본에서 ‘班’과 ‘頒’은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 61) S.6742본에는 ‘創體’로 쓰여 있다(231쪽 하단 10행). 이 부분은 칼과 화살과 창을 맞아 몸에 상처가 났다는 의미이며, ‘瘡’과 ‘創’은 모두 ‘상처를 입다’는 의미가 있다.
- 62) S.6742본에도 ‘駟逐’으로 쓰여 있다(232쪽 상단 15행).
- 63) 위의 ‘國主大臣’으로부터 다섯 줄 뒤에는 ‘國王大臣’으로 쓰여 있다. S.6742본 역시 앞쪽은 ‘國主大臣’, 뒤쪽은 ‘國王大臣’으로 쓰여 있다(232쪽 상단 18행).
- 64) S.6742본에는 고려대장경과 마찬가지로 “調伏衆生故”로 쓰여 있다(232쪽 하단 21행).
- 65) ‘媼’은 ‘寡’의 이체자 ‘寡’의 변형이다.
- 66) 이 부분이 S.6742본에는 “與共住止, 經歷多年”으로 쓰여 있다(232쪽 하단 23행). ‘逕歷’은 당연히 ‘逕歷’의 異體이다.
- 67) S.6742본 역시 “慎更莫犯”으로 쓰여 있다(233쪽 상단 4행).

3.1 異體字의 차이

현존 고려대장경은 많은 이체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이규갑의 『高麗大藏經異體字典』은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수많은 이체자들을 그 용례와 함께 정리한 자전이다. 재조본 고려대장경이 앞선 시대의 여러 대장경 자료들을 취합하고 교정 편집하여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이체자들의 출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보다 수백 년 앞서 제작된 돈황 불경 사본 역시 수많은 이체자들을 포함하고 있어 佛經 字形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대단히 귀중한 자료가 된다. 돈황의 이체자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개별 사본이나 단어·글자 별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張涌泉이 자신의 박사논문을 보충한 『敦煌俗字研究』와 黃征이 그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자전으로 엮은 『敦煌俗字典』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돈황의 서사문학인 變文을 정리하고 주석을 단 『敦煌變文校注』 역시 돈황 사본에 포함된 많은 이체자들을 소개하고 있다.⁶⁸⁾ 돈황의 이체자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정연실이 『金剛經』을 대상으로 돈황 사본과 고려대장경의 이체자를 비교 정리한 바가 있다.⁶⁹⁾ 필자는 위의 영남대 돈황 사본과 고려대장경 비교목록표 주석에서 사본에 쓰인 이체자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중 설명이 좀 더 필요한 이체자들을 앞서 소개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교목록 3번에서 ‘寂’의 이체자 ‘冢’은 재조본 고려대장경에는 없는 글자이다. 영남대 사본에는 ‘寂’자가 총 여섯 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 앞의 두 번은 ‘冢’으로, 뒤의 네 번은 또 다른 이체자인 ‘冢’으로 쓰여 있다. 그리고 영국도서관 소장의

68) 張涌泉 編, 『敦煌俗字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 ; 黃征, 『敦煌俗字典』(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5). ; 黃征·張涌泉 校注, 『敦煌變文校注』(北京: 中華書局, 2007). 『敦煌變文校注』는 전홍철, 정병윤, 정광훈의 번역으로 한국어판 역주본이 곧 출판될 예정이다.

69) 정연실, “敦煌寫本과 高麗大藏經의 『金剛經』 異體字 研究,” 『奎章閣 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集: 高麗大藏經을 통한 敦煌寫本の 再認識』(고려대장경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2009. 3. 20), 258-279.

S.6742 『大般涅槃經』 卷第三 사본에는 여섯 차례 모두 ‘冡’으로 적혀 있다.⁷⁰⁾ 『金剛經』의 이체자를 연구한 정연실은 “출현빈도가 2회 이상인 글자의 경우 동일한 이체자가 동일 판본에서 2회 이상 중복 사용되고 다른 판본에서도 중복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서사자 개인의 쓰기 습관이나 일시적인 誤記가 아닌 자전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이체자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⁷¹⁾고 했다. 출현빈도·판본의 차이·중복 사용 횟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이체자 판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冡’은 돈황 사본이 제작되던 시기에 이미 흔히 쓰이던 이체자였다고 할 수 있다. 張涌泉에 따르면, 실제로 이 글자는 漢代의 비문에서도 흔히 보인다. 그는 裘錫圭 선생의 의견을 따라 ‘冡’이 ‘家’에서 ‘冢’ 편방 오른쪽의 ‘人’ 모양 필획을 지운 것으로 “집안에 사람이 없는”(家中無人) 적막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⁷²⁾ 영남대 돈황 사본에 보이는 ‘寂’의 또 다른 이체자 ‘𡇗’은 고려대장경에서도 ‘寐’, ‘寤’ 등의 흡사한 字形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비교대상인 재조 고려대장경 『大般涅槃經』 卷第三 V09에는 모두 ‘寂’으로 쓰여 있다. 필사자와 필사 환경에 따라 글자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필사의 방식이 점차 정해진 모양에 따라 글자를 새기는 印本의 형식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의 字形으로 규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음으로 비교목록 16번의 ‘愍’자를 보자. 영남대 돈황 사본에서 이 글자는 ‘煩惱’ 2회, ‘苦愍’ 1회, ‘愍害’ 1회로 총 4회 등장한다. 해당 부분의 고려대장경은 이 글자가 모두 ‘惱’로 쓰여 있다. ‘愍’는 당연히 ‘惱’의 이체자이며, 고려대장경의 이체자 목록에도 들어가 있다.⁷³⁾ S.6742에는 이 글자가 ‘惱’로 쓰여 있다. 돈황본 『大般涅槃經』 卷第三의 다른 사본 역시 ‘惱’가 대부분 ‘惱’로 쓰여 있는데,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北6301 사본에는 영남대 사본과 같은 ‘愍’로 쓰여 있다. 돈황본 『大般涅槃經』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景盛軒은 돈황 사본에서 ‘愍’와 ‘提湖’(고려대장경에는 ‘醞酬’로 쓰여 있다) 모양의 필법은 6세기 寫經의 근거로 보고, ‘惱’는

70) 222쪽 하단 4행, 229쪽 하단 20행, 230쪽 상단 5행.

71) 정연실(2009), 262.

72) 張涌泉, 『敦煌俗字研究』, 190쪽.

73)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 305쪽.

당대 중·후기 사경의 필법으로 본다.⁷⁴⁾ 그의 주장에 따르면 ‘惚’와 ‘提湖’를 일관되게 쓰고 있는 영남대 사본은 唐代 이전 6세기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앞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필적과 避諱 상황에 근거하여 영남대 돈황 사본을 隋代의 것으로 추정한 판충구이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비교목록 17번에서 영남대 돈황 사본의 ‘𦉳’은 ‘罔’의 이체자이며 의미는 ‘網’과 같다. S.6742 돈황 사본에도 ‘罔’이 이 모양으로 쓰여 있다. 고려대장경의 ‘網’자는 ‘網’의 이체자이다. 고려대장경에서도 ‘𦉳’이 ‘罔’의 이체자로 쓰이긴 했으나 ‘網’의 이체자로 쓰이지 않았다.⁷⁵⁾ ‘罔’과 ‘網’은 모두 ‘그물’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없던 편방을 더함으로써 글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字數를 늘리는 漢字의 造字 특징으로 볼 때, ‘網’은 곧 ‘𦉳’에 왼쪽 편방 ‘糸’을 더해 분화시킨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영남대 사본과 S.6742 돈황 사본 모두 ‘網’이 아닌 ‘𦉳’을 썼는데, 이는 사본들이 조사된 당시에는 ‘網’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글자인 ‘𦉳’이 더 일반적으로 쓰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2 필사본과 인쇄본 편집방식의 차이: 品次名과 張次번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필사본과 인쇄본의 편집방식이다. 도서의 역사에서 편집은 해당 텍스트를 단순히 책, 두루마리 등의 형태로 제작한다는 차원을 넘어 독자가 실제로 접하게 되는 최종 모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지하듯이 돈황 사본은 두루마리 필사의 전형적 방식을 알려주는 실물 자료이고, 고려대장경은 이미 완성된 인쇄본 불경의 편집 체제를 볼 수 있는 실물 자료이다. 따라서 둘의 비교를 통해 필사와 인쇄본 불경이 매체의 형태에 따라 어떤 편집방식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교목록표의 2번 항목을 보자. 고려대장경은 각 권의 卷頭に ‘大般涅槃

74) 景盛軒, 『敦煌本《大般涅槃經》研究—以版本、異文及訓詁爲中心』, 28·29·44·163쪽 참고. 景盛軒은 ‘醍醐’라는 돈황 사본의 필법을 唐代 이후의 寫經 방법으로 본다. 같은 글, 28쪽.

75)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 772·794쪽 참고.

經卷第三'처럼 卷次名과 순번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영남대 돈황 사본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印本の 시대로 넘어온 후 제작된 고려대장경이 권차명과 순번을 착실히 적은 것은 불경 두루마리(卷子) 제작방식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차명 다음의 品次名과 순번을 제시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고려대장경은 '壽命品第一之三' 식으로 품차명과 순번을 명시하였으나, 영남대 두루마리 사본의 권두에는 이 품차명이 없다. 『大般涅槃經』 卷第三 돈황 사본 중 가장 온전한 두루마리로 남아 있는 영국국가도서관 소장 S.6742와 S.4720 역시 '壽命品第三'이라는 품차명은 없고 권차명 '大般涅槃經卷第三' 다음 행부터 바로 경문의 내용이 시작된다.

불경 두루마리에서 '品'은 한 차례의 필사를 마치는 적당한 단위로 작용한다. 하나의 품에 해당되는 편폭이 보편적인 두루마리의 길이와 어느 정도 맞으면 두루마리 하나에 하나의 품을 넣는 것이다. 그러나 품 하나가 너무 긴 경우에는 두루마리 한 권에 해당 품을 모두 필사할 수 없으므로 몇 권의 두루마리에 나누어 필사한다. 『大般涅槃經』의 다른 돈황 사본을 보면 '壽命品'이라는 품차명과 품차번호가 품의 첫 머리에 명시되어 있다. S.6037은 권두 부분만 남아있는 『大般涅槃經』 卷第一 잔편인데, 여기에는 '大般涅槃經壽命品第一'이라는 제목이 분명히 적혀있다. 그러나 S.0049 『大般涅槃經』 卷第二는 권두 40행 가량만 남아있는 사본인데, 여기에는 '壽命品第二'라는 품차명과 품차번호가 적혀있지 않다. 즉 영남대 돈황 사본, S.6742, S.4720 사본과 마찬가지로 품차명과 품차번호는 없이 권차명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北6292 『大般涅槃經』 卷第二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두루마리인데, 이 사본은 머리제목이 '大般涅槃經卷壽命品'이고 같은 행 아래에 작은 글씨로 '卷二'가 적혀 있다. 여기서 '卷二'는 물론 『大般涅槃經』의 '卷第二' 임을 의미한다. 즉 품차명을 경전의 제목과 함께 열거하되 품차번호는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해 고려대장경은 매 권마다 '壽命品第一', '壽命品第一之二', '壽命品第一之三' 식으로 품차명과 품차번호를 알기 쉽게 밝혔다. 불경에서 '品'은 곧 "품류의 의미로 종류가 같은 것을 모아서 하나의 단락으로 삼은"(品類之義, 聚類同者

爲一段)⁷⁶⁾ 것이다. 여기서 ‘종류가 같은 것’은 곧 하나의 내용으로 묶을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품’의 정의에 따르면, 고려대장경이 ‘품’을 세분한 것과 달리 ‘품’의 첫머리에만 품차명을 쓴 돈황 사본은 고려대장경보다 오히려 제목 분류를 간단히 하면서도 불경의 단락을 나누는 기준으로서의 ‘품’의 의미와 기능을 더욱 원칙적으로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서편집의 역사에서 볼 때, 영남대 사본과 달리 고려대장경이 매 권마다 이러한 품차명을 명시한 것은 초기의 필사본으로부터 점차 인쇄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실용적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서 편집의 측면에서 영남대 사본과 고려대장경의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바로 고려대장경에는 張次번호를 명시한 반면 돈황 사본에는 이런 번호가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을 보면 각 권의 맨 첫 장은 장차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첫 장마다 이미 품차명과 번호를 명시하여 굳이 장차번호를 넣지 않아도 그 권의 가장 첫 장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차명과 품차명도 없는 두 번째 장부터는 ‘涅槃經第三卷 第二張’, ‘涅槃經第三卷 第三張’ 식으로 각 장마다 장차번호를 명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大般涅槃經」 卷第三 뿐 아니라 고려대장경의 다른 경전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쇄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판 하나하나가 제작 단위가 되어 조판의 순서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두루마리는 적당한 크기의 종이 여러 장을 이어 붙여 긴 편폭으로 제작하긴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하나의 단위로서 의미를 갖진 않는다. 다시 말해 두루마리 한 권이 하나의 단위이고, 미리 제작한 두루마리가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쪽 필사해가거나, 내용을 써가면서 그에 맞춰 두루마리를 점점 길게 이어붙이거나, 두루마리의 전체 길이를 감안하여 적당한 선에서 필사를 마치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 돈황 사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두루마리 제작방식이 흔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루마리 사본 시대의 종이 한 장의 크기가 현대 인쇄본의 조판 크기에 분명히 영향을 주긴 했지만, 두루마리 사본의 시대에는 낱장의 종이가 아직 하나의 단위나 쪽으로 인정되진 못했음을 돈황

76) 丁福保 編, 『佛學大辭典』(北京: 文物出版社, 1984), 792.

사본이 증명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두루마리의 전체 길이를 감안하여 필사의 양과 편폭을 조정해가는 방법 이야말로 두루마리라는 형식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대단히 원시적인 제작방법일 수 있지만, 당시의 도서 제작 환경에서 두루마리는 대단히 유용한 필사 매체였다. 특히 종이에 먼저 필사를 한 후 두루마리로 이어붙일 수도 있고, 종이를 먼저 이어붙인 후 필사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은 글쓰기 방식에 유연함을 더해줄 수 있는 두루마리 형태의 큰 장점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唐代를 전후해서 글쓰기의 장르와 방식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생산된 도서의 양도 대폭 늘어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종이라는 매체 자체의 편리함과 함께 두루마리라는 형식의 유연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채로운 모양과 제작방식을 보여주는 돈황 두루마리 사본이야말로 이러한 도서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훌륭한 실물 자료가 된다.

4. 結 論

이상으로 현재 영남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大般涅槃經』 卷第三 두루마리의 연구가치를 재조명하고, 그것이 현존 고려대장경 인본경과는 어떤 문헌학적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영남대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은 唐代 이전에 제작된 전형적인 불경 두루마리 형식으로서 초기 불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점이 그 가치를 더해준다. 이 논문에서는 6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영남대 돈황 사본과 고려시대에 제작되어 이미 완성본 대장경의 면모를 갖춘 재조 고려대장경과의 비교를 통해 두 불경의 문헌학적 차이를 살폈다. 본문에서 논의한 異體字의 변화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는 필사 방식이 후대에 정형화된 인쇄 방식으로 점차 바뀌면서 그 글자 역시 규범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남대 돈황 사본 『大般涅槃經』 卷第三 두루마리와 인쇄본 고려대장경의 권차명·품차명·장차 번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매체의 형태에 따라 이러한 편집 방식에 변화가 생겨났고, 이는 해당 불경을 실제로 보게 될 독자를 염두에 둔 편집방식의 변화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루마리와 인쇄본 도서의 비교는 도서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두 방식이 전환되는 시점의 자료에 대한 비교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두 양식이 혼재된 상태로 도서가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두루마리부터 인쇄가 이미 시작된 시기까지 약 5~6세기에 걸쳐 분포하는 돈황 사본과 본격적인 인쇄 시대 이후의 출판물에 대한 비교는 도서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결론에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변화된 연구환경에 맞는 연구방법의 개선이다. 돈황학의 출발을 해외로 유출된 장경동의 사본들이 각국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때로 간주한다면, 그 역사는 근 100년에 달한다. 그동안 돈황학은 예술·종교·역사·문학·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으며, 각지에 소장된 사본들의 이미지가 책으로 출판되면서 연구에 가속도가 붙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원본의 이미지를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중심으로 연구 환경이 변화하면서 돈황학은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국제돈황프로젝트’(IDP: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의 활동이다. 1994년 영국도서관에 설립되어 1998년부터 돈황 사본의 디지털이미지를 웹상에 제공해 온 IDP는 단순히 돈황 사본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연구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매우 선명한 이미지를 조건 없이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⁷⁷⁾ 한국에서의 불경 디지털화는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작업이 대표적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고려대장경」의 디지털화와 지식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지난 2011년에 마무리하여 지금도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듯 돈황 사본

77) 현재 돈황학 연구에서는 돈황 문헌 뿐 아니라 석굴의 도상, 유물, 이와 관련된 일반 정보까지 함께 디지털화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춘평(韓春平), 『돈황학 디지털화 문제 연구(敦煌學數字化問題研究)』(北京: 民族出版社, 2012), 25-52 참고.

과 「고려대장경」에 대한 연구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실제로 만지고 냄새를 맡는 등의 특수 작업 외의 문헌학 혹은 도서사 연구에 있어서는 변화된 연구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필자는 이러한 변화된 연구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문헌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당연히 원본 그대로의 1차 자료이다. 이미지의 복원과 공유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이 양질의 1차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풍부해질 것이며, 실제로 많은 연구단체들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문헌 자료들의 목록을 만들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료들을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은 곧 변화된 환경에 따른 연구자들의 새로운 몫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高麗大藏經」. 서울: 동국대학교, 단기 4290년(1957) 발행.
「大般涅槃經」四十卷本(한글대장경). 서울: 동국역경원 발행, 1998.
黃永武 主編. 「敦煌寶藏」. 서울: 驪江出版社, 1989.
敦煌研究院 編. 「敦煌遺書總目索引新編」. 北京: 中華書局, 2000.
中國國家圖書館 編. 「國家圖書館藏敦煌遺書」.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黃征·張涌泉 校注. 「敦煌變文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7.
국제돈황프로젝트(IDP) 웹사이트 제공 돈황 사본 이미지자료. <<http://idp.bl.uk>>.
고려대장경연구소 웹사이트 제공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 이미지 및 원문자료
<<http://kb.sutra.re.kr>>.

2. 논저류

- 景盛軒. “敦煌本《大般涅槃經》研究—以版本、異文及訓詁爲中心.” 박사학위 논문. 浙江大學 人文學院. 2004.

- 季羨林 主編. 『敦煌學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8.
- 孟列夫(Men'shikov, L.N.) 主編. 『俄藏敦煌漢文寫卷叙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송일기.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성과정 연구.” 『書誌學研究』 제49집(2011. 9). 41-76.
- 李圭甲 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 서울: 高麗大藏經研究所, 2000.
- 李圭甲 外著. 『敦煌文獻總覽』. 서울: 高麗大藏經研究所, 2011.
- 李圭甲 外著. 『高麗大藏經과 敦煌佛敎文獻 對照目録』(敦煌文獻卷子編號, 高麗大藏經番號). 서울: 高麗大藏經研究所, 2011.
- 張愛順 외 공저. 『高麗大藏經의 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 張涌泉 編. 『敦煌俗字研究』.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6.
- 정광훈 “한국 소장 둔황 사본의 소개와 소장 과정 추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제둔황프로젝트 서울센터 편, 『IDP SEOUL NEWS』 7호(2014. 4). 1-6.
- 丁福保 編. 『佛學大辭典』. 北京: 文物出版社, 1984.
- 정연실. “敦煌寫本과 高麗大藏經의 『金剛經』 異體字 研究.” 『奎章閣 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集: 高麗大藏經을 통한 敦煌寫本の 再認識(고려대장경 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9. 3). 258-279.
- 韓春平. 『敦煌學數字化問題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012.
- 洪禹欽. “敦煌卷子<大般涅槃經卷第三>·<大般涅槃經金剛身品第二>解題.” 『中語中文學』 第3輯(1981. 10). 613-642.
- 黃征. 『敦煌俗字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5.

